

푸른빛 실크로드

Bluish Silk Road



서윤주 / 정회원 (주)디안 건축사사무소
by Suh Yoon-ju, KRA

약력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홍익대학교 출강

낮선 사람들과의 4박6일간의 일정, 게다가 이쯤조차 생소한 낯선 지역으로의 여행...

설레는 마음과 밀린 업무를 뒤로 한 채 떠나는 일정에 대한 낯선 불안감이 교차한다.

게다가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약속 시간보다 한참 뒤에 공항에 도착한 탓에 일행과는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필자는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의 이륙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고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나서야 돌아본 기내 안에는 일행인 듯 보이는 사람들의 들뜬 대화소리가 여행의 시작과 기대를 알린다.

건축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시간이 허락되는 한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경험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쉽게 여행을 결정하기 어려워 졌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업무상의 출장을 제외하고는 스스로를 위한 여행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실로 몇 년 만에 출장이 아닌 여행으로 떠나는 선물을 받은 셈이다. 훌쩍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이나 건축여행을 좋아하던 필자로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참으로 낯선 여행지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외우기도 낯선 이름이다. 중앙아시아의 심장인 우즈베키스탄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곳 타슈켄트와 과거의 영화가 있는 사마르칸트 시간여행이 될 듯 하다.

이 여행길에 무엇인가 봐도 좋고 아무것도 보지 않아도 좋지 않겠는가, 그저 때론 광활한 평원만으로도 먹먹했던 일상을 털어버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렇게 떠나는 여행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숙지 못한 부족함을 위안으로 채우는 동안 비행기는 낯선 땅 중앙아시아



아직 너머로 보이는 실크로드의 저녁놀



사마르칸트의 푸른빛이 보이는 도시풍경

아에 도착했다.

그 첫 번째 풍경 공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절차를 기다리는데 묘한 긴장감이 돈다.

아직 사회주의를 백하고 있는 나라이며 외환관리가 철저해서 보유한 현금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말에 갑자기 다들 분주해진다.

내국인 외국인 이 뒤섞이고 줄도 없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태이며 말도 안 통하는 상태이다. 잘못하면 3시간 이상을 공항에 발이

몹이는 때도 있다는데, 피곤함이 몰려온다.

버스에 올라서 창밖으로 보이는 시내는 약간 어두운 듯 차분하다. 어찌면 평양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이른 새벽부터 일정의 시작이다.

타쉬겐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는 기차로 약 5시간 이동을 한다고 한다. 달리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은 때론 60년대 시골모습과 비슷하기도 하고 때론 광활하고 서늘하다.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며 과거의 역사의 중심지인 실크로드를 달리고 있다.

첫 탐방지인 사마르칸트에 도착했다.

사마르칸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서 동방의 로마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는데, 푸른도시라는 뜻을 가진 이슬람의 고도답게 도시 곳곳이 푸른색 돔이다.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빛바랜 벽돌집 이슬람 사원의 푸른색 돔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리다.

구르아미르묘에 도착했다.



구르아미르묘의 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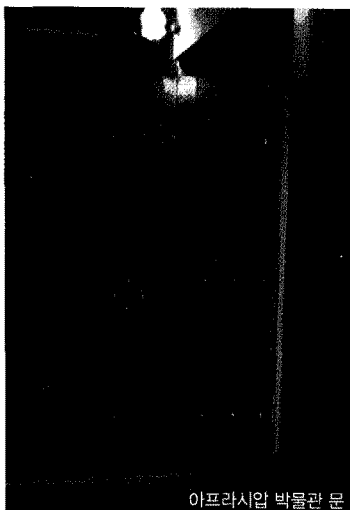


내부의 화려한 장식

티무르 대제와 그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까만 무덤이 티무르왕의 자리이고 실제 무덤은 지하에 있다고 한다. 티무르를 비롯해 여러 개의 관이 있지만 모두 비어있다. 실제 관은 지하 4m아래에 보관돼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티무르 왕이 손자의 전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중세 양식의 사원 이라는데, 손자를 엄청나게 사랑했음을 푸른 타일의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돔으로 이야기 하는 듯 하다.

두 번째 탐방지인 아프리카시 압 박물관은 작은 규모로 찬란함을 가진 프레스코 벽화가 있는 곳으로, 이 박물관이 유명한 것인 고려의 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신라 혹은 고구려인들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다는데, 필자는 가이드의 설명을 뒤로한 채 지극히 한국적인 문에 시선이 머문다. 낯선 땅에서 발견하는 한국적 모습은 언제나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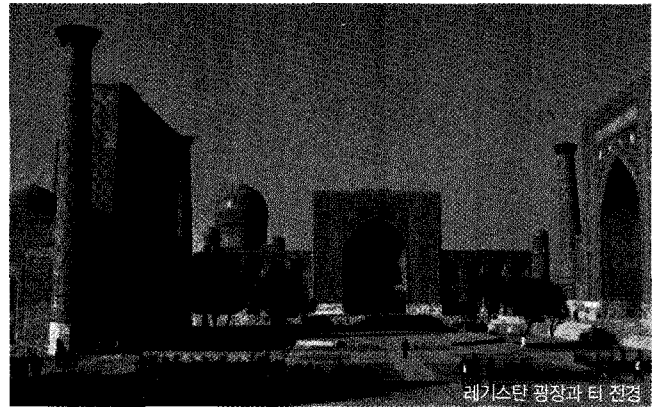
아프리카시압 박물관 문

다음으로 이동한곳은 레기스탄 광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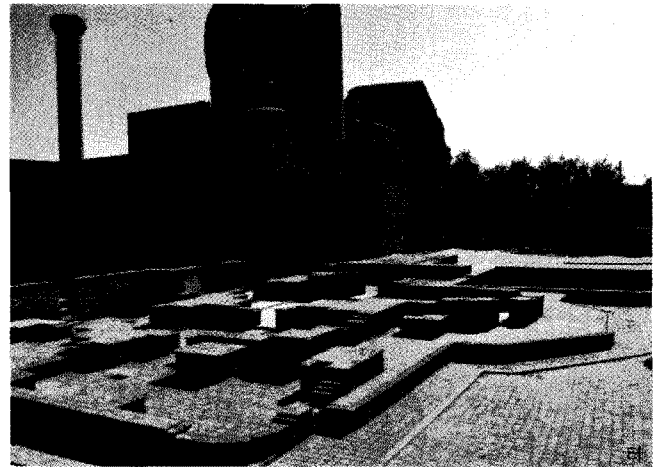
레기스탄 광장은 사마르칸트의 중심지로서 웅장하면서도 화려하다. 일행은 한눈에 펼쳐지는 스케일감에 압도되면서도, 저 돔 꼭대기는 타일을 어떻게 붙였을까 하는 것과 축조법에 대한 고민과 토론 중이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가이드의 설명을 조합해보니 학문의 중심지였으며 교역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필자가 서있는 이 자리가 과거 화려하게 그 명성을 떨쳤던 동서무역의 중심지인 것이다.

비록 지금은 관광 상품점으로 활용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섬세한 모자이크무늬가 아로새겨진 레기스탄 광장과 건물 티무르의 묘...아라비안나이트의 알라딘과 신드바드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듯하다.



레기스탄 광장과 티무르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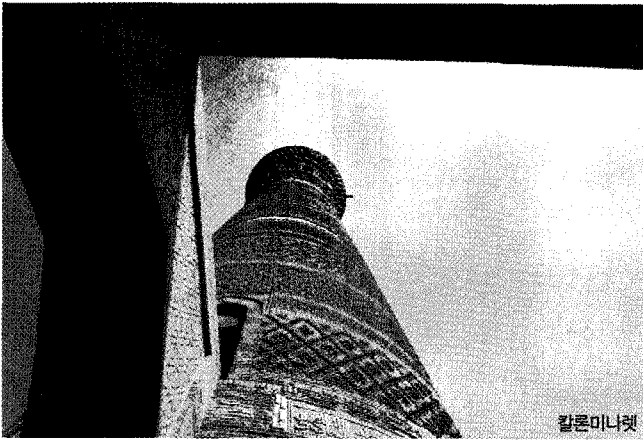


다음 탐방지인 부하라에 도착했다. 이제는 그런대로 익숙해진 현지식을 먹기 위해 도시의 꽤 높은곳에 위치한 식당에 앉아서 돌아보니 골목길을 따라 숨은 도시의 모습이 보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일상의 모습들을 담은 흙벽돌의 건물들이 거대한 스케일의 푸른색 돔과 미나렛과 교차되어 낯선 공간감이 빛을 발하고 있다. 에메랄드 색 돔과 칼론 미나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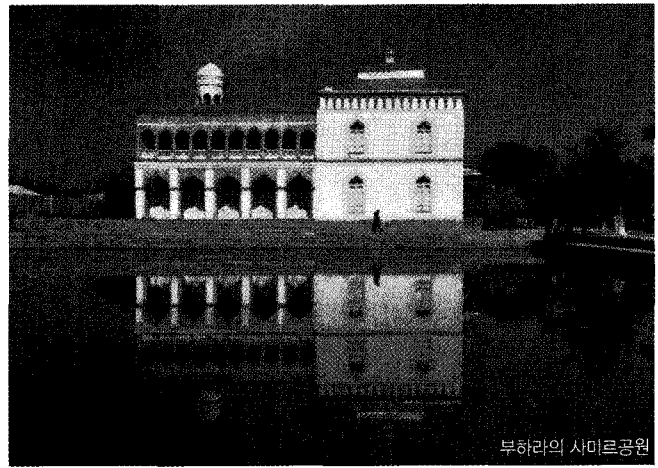
12세기에 건축되었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470미터의 미나렛이다. 코너를 돌면 이 미나렛이 나타나는데 그 존재감이 엄청나다.

칼론 미나렛 주변을 보고 아르크 성쪽으로 걸어갔다 몇 분 걸으면 아르크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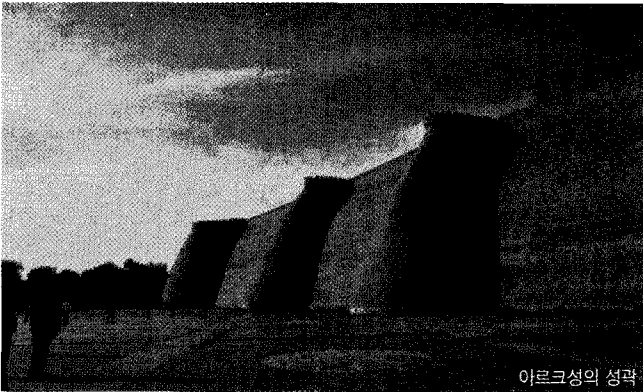
아르크성은 1920년 구소련 공격으로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실제 왕족이 살았던 성이라다. 부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라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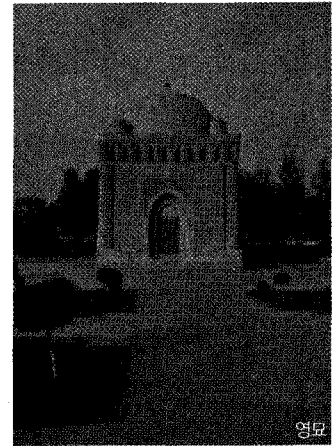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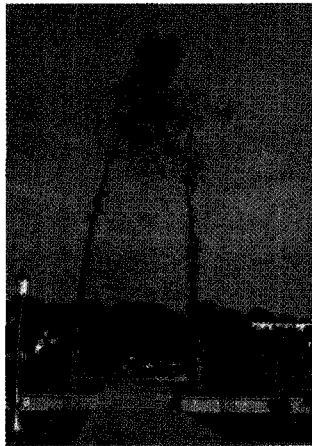
칼콘미나렛



부하라의 사미르공원



아르크성의 성곽



영묘

런지 황폐하다. 흙벽돌이 과거 영광의 허무함을 이야기라도 하듯이 부서져 있다. 허무한 시간의 흔적을 쫓다보니 일행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조금 지친 듯 시선을 쫓는 일행들과 한편으로 사막의 노을을 뒤로하고 담을 타는 그림자가 영글에 잡힌다. 형태가 배제되고 남은 실루엣은 형태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는다.

아르크 성을 지나 좀 더 가면 사마니 공원에 이르면서 설명을 듣기 보다 카메라로 바라보는 작업에 몰입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바라보니 스쳐지나갈 뻔 한 비례가 눈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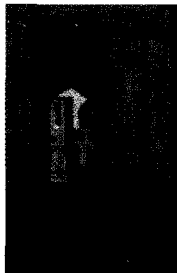
공원 문을 지나 쪽 직진하니 느닷없이 대 관람차가 눈에 들어온다.

대 관람차를 지나고 나니 이제까지와는 다른 느낌의 영묘가 나타났다.

905년에 만들어진 거라는데, 이제까지 와의 건물과 다르게 화려한 타일이나 색상은 없지만 오히려 정교하게 쌓아올린 축조법과 정교하게 들어오는 빛이 시간여행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듯하다.



역광으로 비쳐진 실루엣



마지막 날이다. 짧은 여정의 빠듯한 일정으로 늘 바쁘게 움직이다가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시간을 즐기며 이제는 제법 친해진 일행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모닝커피를 즐긴 후 버스에 올랐다. 타쉬겐트의 시내를 돌아보고 침간산으로 가는 일정이다. 계획에 없던 일정이

지만 가이드의 제안으로 전철을 이용해서 아무르 타무르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에는 아무르 타무르 기마상이 우뚝 서있다.

사마르칸트에는 고뇌하는 왕이었다면 타쉬겐트에서는 말을 타고 역동적인 티무르 왕이다.



마지막 여정인 침간산을 향해 출발이다.

인솔자의 설명대로라면 광활한 평지인 중앙아시아 대륙에 스키를 탈수 있는 유일한 산이었는데 그곳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어떨지, 케이블카가 아닌 스키 리프트를 타고 오르는 스틸 또한 색다른 경험일 것이다.

도착해보니, 그날따라 운행이 중단이다. 여행지에는 늘 이렇게 일정이 어긋나는 일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며 즉흥적으로 일행들은 등반을 결정했다. 산이 거기 있기에.

산행을 포기한 몇몇의 동료들이 산 아래에서 여유를 즐기는 동안 어느새 가도 가도 쉽게 정상을 내어주지 않을 듯 한 산을 향해 오르더니, 어느새 중턱에서 카메라 불빛이 반짝인다. 그곳에서 그림같이 펼쳐지는 중앙아시아를 품었으리라.

침간산은 장엄한 산세와 만년설 그리고 산중턱에 자리한 호수 등 절대 청정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버스로 이동하는데, 굽이 굽이 준봉들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침간산 중턱인 해발 1600m 고산지대에 차르박 호수가 있다. 텐산과 침간산의 만

년설이 녹아내린 물을 받아 저장하는 인공 담수호라고 한다. 침간산에서 차르박 호수로 이르는 길에는 초원구름이 계속 이어진다. 나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문득 이맘때면 어딜가나 산세 가득 단풍이 가득할 내 나라의 대지가 더욱 소중해 진다.

절벽을 기다시피 오르내리며 풀을 뜯고 있는 양떼, 노새의 등에 올라탄 어린이, 하루 종일 지나가는 손님 하나 없는 노점상을 지키고 있는 노인...타임머신을 타고 60년대로 돌아간 듯 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평화롭고 순박한 그들의 표정은 이 나라의 대지를 닮은 듯 하다. 광활한 대지와 척박한 자연이 주는 교훈은 도전 정신과 관대함이라. 생각이 그렇게 미치다 보니 문득 하루를 분단위로 쪼개 쓰는 도시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중앙아시아의 뜨거운 심장 우즈베키스탄, 축축한 자연을 끼안은 돌의 도시 이곳 타쉬켄트에서 인류가 닦아놓은 가장 길고도 위대한 길 실크로드를 차를 타고 달리는 있다는 기분 탓인지 차창밖으로 펼쳐지는 사막의 길은 아득한 중세의 광야를 거슬러 가는 느낌이다.

타쉬켄트의 구시가지에는 진흙 벽돌집 모스크사원 이슬람학교 등 실크로드와 오아시스의 잔영이 남아있고, 대지진 이후 건설된 신시가지는 아름다리 플라타너스 가로수 사이로 낡은 아파트와 건물들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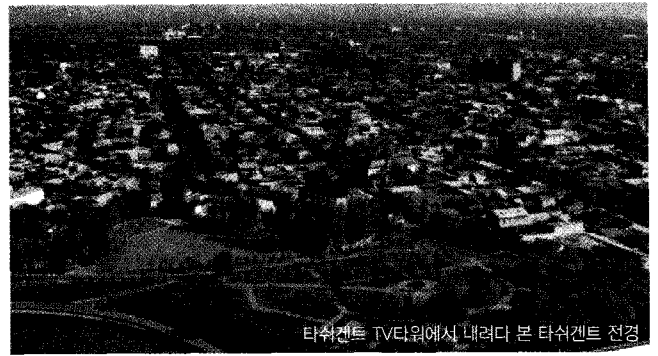
젊은이들의 기운을 느끼는 브로드웨이 광장을 들어서니, 골동품과 장신구 등을 파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고 그림들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고 있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변화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았다.

이런 회색빛 거리를 밝게 해주는 것은 젊은이다. 실크로드의 나라답게 그리스, 러시아, 터키, 아랍, 우즈베크 등 숭한 민족이 섞여 살고 있고, 혼혈 또한 다양하고 여성들은 대부분 미모가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서울서부터 화제였다. 오직했으면 우즈베키스탄에는 김태희가 밭을 갈고 한가인이 물을 길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호기심 많은 여행객의 발걸음을 더욱 설레게 한다.

바자는 언제나 그 지역의 토속적인 삶의 향취를 느끼게 한다. 수많은 상인들이 지붕만 있는 난전에 좌판을 벌려놓고 과일, 빵, 식료품과 일상용품은 물론 카펫과 동제 사모바르, 파피루스, 그림액자 등을 팔고 있다. 실크로드시대의 정취를 가득 담고서, 이제 그 여정을 마무리 하기위해 전망대로 향한다. 타쉬켄트 TV타워,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375m의 탑으로 1985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100미터 높이의 전망대까지는 6층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엘리베이터에 의해 순식간에 올라간다. 그렇게 오른 전망대에서 타쉬켄트의 도심을 내려다 본다.

돌아보면 건축을 하는 우리들의 여행길은 대부분이 그 도시에서 건축적 특징을 찾아 해매는 일을 치중했다. 무엇이든 사진에 눈에 담아야 하고, 부지런히 다녀야 하고 빠듯하고 뻑뻑한 일정 속에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명으로 여행이라



기보다는 현장 학습에 가까웠다. 그러하기에 도시전체가 건축박람회장인 베를린이나 파리 혹은 가까운 동경이라도 가면 새벽부터 밤까지 일상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곤 했다. 언제나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는 일상에서 벗어나 시간과 기회가 닿는 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새로운 공기를 느끼리라 다짐하면서 돌아오는 가방 안에는 찍어온 사진만이 한가득이었고, 그 사진은 때론 너무나 바쁘게 찍어서 기억하기조차 힘들기도 했다.

이번 여행길은 어떠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밀려온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건축이기에 각자가 바라보는 앵글은 다르리라. 필자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떠난 길이기에 무언가를 보기위해 애쓰기 보다는 보여지는 대로 즐길 수 있던 길이었다.

필자는 푸른 실크로드의 꾸며지지 않은 흙냄새와 낮선 이방인을 보면서 때로는 신기하게 때로는 환하게 웃어주는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기억하고 싶다.

어린 시절 밤을 새며 읽었던 신드바드의 동화와 바자의 한편에서 찾아낸 작은 램프만 보면 꼭 문질러 보면서 지나가 나오길 기대하는 마술램프와 나는 양탄자의 추억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보아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지난시간과 그 때 꿈꿨던 그 땅에서 품었던 희망이 아닐까 이들의 현재처럼.

짧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다.

눈을 잠깐 부치고 나면 서울이고 또 우리는 각자의 바쁜 일상 속으로 마치 어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한참 뒤에나 돌아본 사진은 그 장소조차 낯설 수 있으리라.

필자 역시 탐방기를 써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카메라를 열어보니 불과 얼마 전인데도 아득함에 당혹감이 들었다. 하지만 언제나 여행이 좋은 이유는 일상을 떠나면 무엇이든 해 볼 수 있는 자유때문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려도 되는 것인 것처럼 무엇을 담았던, 각자가 무엇을 기억하던 답사로 시작된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이 탐방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리해두고 싶다.

마지막으로 심사의 주관과 답사를 준비해주신 협회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4박6일정을 보낸 금번 참여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